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 분석

김 희 걸**
이 영 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학연구는 신생전문직으로 그 역사가 짧으나 1955년 대학과정이 설립된 이후 62년에 간호학 석사학위과정 개설, 78년에 간호학 박사학위과정 개설 등에 힘입어 간호전문직으로서의 학문발전에 매진해 왔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이들 교육기관으로부터 대량의 학위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등(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발표된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이 60년대 54편, 70년대 413편, 80년대 1523편이었고 90년 이후부터 기하학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양적 팽창은 간호연구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간호학의 지식을 발굴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간호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학적 활동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연구논문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간호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1977)는 3개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논문 276편을 분석하였고, 강등(1980)은 대한간호,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총 318편을 홍등(1983)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199편을 이(1984)는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211편을 오등(1992)은 대한간호학회지, 대한간호, 중앙의학에 게재된 논문 389편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의 정리
4. 연구의 제한점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자료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및 토의

1. 학위논문의 일반적 특성
2.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 1) 연구유형 분석
 - 2) 연구설계 분석
 - 3) 연구유형과 연구설계와의 관계
 - 4) 연구대상자 분석
 - 5) 연구장소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외래교수

주요 간호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하였다.

간호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 중 오(1985)는 1962년부터 1983년까지의 학위논문 324편을 분석하였고 고등(1992)은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학위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만을 분석하였고, 김등(1994)은 학위논문 중에서 실험연구논문 150편을, 전등(1994)은 일부 대학원의 간호학위논문 469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간호연구 분석은 주요 간호학술지에 실린 일부의 논문이나, 간호학위논문의 일부분 혹은 한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간호학위논문의 연구분석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전수를 중심으로 연구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장소 등의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발표된 학위 논문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이며 아울러 앞으로 간호 연구에서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중에서 1779편의 국·영문초록 또는 논문의 결론부분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위논문의 연구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장소를 연도, 학위, 대학원별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실태를 체계화하여 앞으로 간호연구의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연구유형을 연도, 학위 및 대학원별로 분석한다.
- ② 연구설계를 연도, 학위 및 대학원별로 분석한다.
- ③ 연구설계와 연구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 ④ 연구대상자를 연도, 학위 및 대학원별로 분석

한다.

- ⑤ 연구장소를 연도, 학위 및 대학원별로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연구유형: Diers(1979)가 제시한 간호이론의 단계에 따른 연구방법으로서, 요인추구형(factor isolating), 요인관련형(factor relating), 상황관련형(situation relating), 상황생성형(situation producing)으로 분류된다.

요인추구형: 어떤 사건이나 현상, 행위를 기술하고 분류하여 사건, 현상, 행위를 분리시키는 이론이다. 이 단계의 연구질문은 '입원환자의 불안 요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요인관련형: 위의 단계에서 명명되고 분리된 요소 중 공통적 관계가 있는 개념끼리 연결지어 현상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단계의 연구질문은 '정보제공과 불안감은 어떤 관계가 있을가'와 같은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상황관련형: 요인관련형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특수한 변인간의 구체적 관계를 예측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단계의 연구질문은 '입원시 정보제공은 불안감을 낮출것이다'와 같은 가설검증을 하는 연구이다.

상황생성형: 이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일명 처방이론(prescription)이라고도 한다. 위 세단계의 이론적 결과를 기초로하여 어떤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그것은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단계의 연구질문은 '불안감이 높은 입원환자에게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하는가'와 같은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연구설계: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청사진(design)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비실

험·질적연구로 구분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수집된 학위논문의 국·영문초록 및 연구결과 부분에 원본의 전반적인 연구 내용이 요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무응답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학위논문의 원본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우리나라의 간호연구 분석이나 동향과 관련된 연구로 강등(1980)은 1970년 1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10년간 대한간호와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318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론 연구(Fundamental or theoretical research)와 실제 연구(action or practical research)로 대별하여 보았는데 이론 연구가 31.4%, 실제 연구가 68.6%로 나타났으며 연구 영역 분류에서는 간호 행위에 관한 것이 46.2%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의 자질 영역이 32.1%, 간호 대상자 영역이 21.7%로 나타났다. 또 연구방법의 분석에서는 조사연구가 76.1%로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가 2.3%, 실험연구가 6.9% 사례연구가 4.7%의 순이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서 자료수집 도구로서 설문지가 제일 많았고(60.6%) 측정(24.2%), 관찰(11.4%) 그리고 기타(3.8%)의 순이었으며 분석 방법에서는 한 연구에서 한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논문을 단순히 백분율로만 처리한 것이 57.0%였다. 추론통계 방법으로서 x^2 -검정 16.7%, t-검정 12.1%, F-검정 8.8%, 상관관계 계수 5.4%의 순이었는데, 점차 다양한 처리방법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홍등(1983)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의 대한간호학회지와 N.R.에 게재된 간호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는 조사연구가 55.8%로 가장 많고, 사후연구 28.1%, 실험 및 유사실험논문 10.6%, N.R.에 게재된 논문은 조사연구 32.

9%, 실험 및 유사실험논문이 26.0%, 자료수집은 두 전문지가 설문지법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통계분석 종류는 대한간호학회지가 서술통계 56.4%, 추론통계 39.5%, N.R이 서술통계 47.7%, 추론통계 34.3%로 분석하고, 두 간호 전문지 간의 차이로 대한간호학회지는 N.R.에 비해 조사연구가 많고 고급통계와 비모수통계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N.R.에 비해 제언이 제시된 경우가 적었다고 밝혔다.

이(1984)의 1970년에서 1983년 9월까지 대한간호 및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간호연구 경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상간호 분야가 55.4%, 지역사회 보건이 22.3% 간호교육이 14.2% 나타났으며 연구 유형에는 서술적 연구가 78.9%, 실험적 연구 19.5%, 역사적 연구 2.8%의 순이었고 또 연구 대상으로는 환자 및 가족이 31.3%, 간호학생 및 간호사가 26.1%, 일반인이 2.7%를 나타내었다.

오(1985)의 1983년까지의 국내 간호사에 의한 석·박사학위 논문의 분석에서 연구의 주제별로는 성인이나 소아와 같이 성장 발달의 개념으로 분류된 논문이 전체 논문의 20.2%, 건강에 관한 것이 15.1%, 간호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위한 것이 12.7%의 순위였다. 연구 대상자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21.6%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의 개념으로 묶은 것이 18.6%,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종류별 논문에서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학위논문 366편 중 명명이론(factor isolating) 72.4%, 요소관련이론(factor relating) 11.5%, 상황연관이론(situation relating) 4.6%, 상황생성이론(situation producing)은 한편도 없었다고 하였다.

Brown, Tanner & Patrick(이은옥 등, 1991)에 게재)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간호연구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간호연구의 양적 팽창, 임상중심 연구의 증가, 간호이론을 배경으로 한 연구의 증가 및 연구방법의 강화추세를 보고하였다.

고등(1992)은 1960년부터 1991년까지의 간호학관련 논문 2,354편을 분석하여 가장 빈번히 사용된 주요어는 '간호사'로 밝히고 그 외 연대별로 70년대에 '정신장애' '수술' '병원감염' '간호수행'이 다수 연구되었고, 80년대 전반기에는 '암' '투석' 등의 간호중재에 대한 개념이 다루어지다 80년대 후반기에는 '만족' '스트레스' '우울' 등 대상자의 사회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연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오등(1992)은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간호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전부에게 질문지, 심층분석, 학술지게재 논문분석을 통한 연구분석에서 탐색과 서술을 목적으로하는 기술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 말까지 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총 171편 중 유사실험연구가 22.2%이며 대한간호에 게재된 논문분석에서는 398편의 논문 중 22.6%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이고 탐색과 기술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65.8%라고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환자가 가장 많고(76.9%) 그 다음 간호사 일반인 순서였다. 간호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되는 장소로는 병원(67.6%), 학교, 외래, 가정의 순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김등(1994)은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발표된 간호학 학위논문 중 실험논문 150편을 분석한 결과 석사학위논문은 70.5%, 박사학위논문은 34.1%가 실험연구 논문이며 이들은 전체 학위논문의 8.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설계유형은 순수실험보다는 주로 유사실험연구이고, 대부분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임의표출을 많이 이용하며, 표본의 크기도 21~30명 정도라고 밝혔다. 실험효과 측정은 생리적측정법이 주로 이용되며, 사회심리측정법과 보고식 질문지도 이용된다고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되고 자료분석시 모수통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등(1994)은 1961년부터 1993년 2월까지 1개 대학원과 2개 특수 대학원의 학위논문 469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수가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300%의 양적 증가를 보였고, 석사학위의 경우 연구설계는 대부분 조사연구에 치우쳐 있으나 박사

학위논문은 유사실험논문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질적연구도 증가추세라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환자이고 연구장소도 병원이 대부분이나 보건대학원의 경우 간호행정이 많다고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법을 이용해 수집하고, 자료분석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의 복합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연구된 변수중 10회 이상 반복된 변수가 17개로 반복연구된 개념은 신체적인 변수 뿐 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변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간호이론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간호학의 논문분석연구가 간호영역, 연도, 자료수집방법, 자료처리 및 분석 등에 국한되어 있고 연구유형, 유형에 따른 연구설계, 대상자 및 장소에 대한 분석이 미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처음 간호학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미진한 영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자료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의 대학원, 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및 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박사 논문중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2354편중 국·영문초록이나 결론부분이 수집 가능했던 1779편(전체 학위논문의 76%)을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자들이 1991년도 3월부터 1992년도 1월에 걸쳐 관련 대학 및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위 수여자 명단과 학위논문의 요약 및 결론부분을 복사하여 수집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이은옥(1991)의 '간호연구 방법'을 참조하여 연구 자료의 분석틀을 작성하고 자료 분석의 실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200편의 논문으로 일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의 내용에는 연구 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장소 등이 포함되었다. 이 항목 중에도 선행 연구나 관련 문헌의 방법과의 접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시 학위논문 20편을 가지고 이차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자료 분석 틀을 조정하였다. 최종분석 단계까지 도달하는 동안 자료들이 갖는 표기 미비 및 불명료한 표현으로 부득이 연구분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처리 불능으로 된 항목이 많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및 χ^2 -검정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토의

1. 학위논문의 일반적 특성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발표된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 2354편 중에서 입수가 가능한 1779편(76%)의 국·영문 초록이나 논문의 결론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박사학위 논문은 95편(5.3%), 석사학위 논문이 1684편(94.7%)이었으며, 연도별로 60~64년 0.1%, 65~69년 0.

〈표 1〉 학위 논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실수	백분율(%)
학위	석사	1684	94.7
	박사	95	5.3
연도	60~64	2	0.1%
	65~69	16	0.9
	70~74	65	3.7
	75~79	172	9.7
	80~84	546	25.6
	85~89	792	44.5
	90~91	276	15.5
대학원	대 학 원	963	54.1
	보 건 대 학 원	420	23.6
	교 육 대 학 원	265	14.9
	행 정 대 학 원	113	6.4
	기 타	18	1.0
총 계		1779	100.0

9%, 70~74년 3.7%, 75~79년 9.7%, 80~84년 25.6%, 85~89년 44.5%, 90~91.8월까지 15.5%를 나타내었다. 대학원별로는 대학원 54.1%, 보건대학원 23.6%, 교육대학원 14.9%, 행정대학원 6.4% 기타 1.0%이었다(표 1).

2.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1) 연구의 유형 분석

연구의 유형을 이론 단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요인추구형(factor isolating) 58.0%, 요인관련형(factor relating) 29.1%, 상황관련형(situation relating) 11.4%, 상황생성형(situation producing) 1.5%로서 학위논문의 약 60%가 요인추구형으로 나타났다(표 2).

오등(1992)의 연구 결과에서도 명명이론(factor isolating)을 위한 기술연구가 7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요소연관이론(factor relating)이 11.5%, 상황관련이론이 4.6%, 상황생성이론은 한 편도 없었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한국 간호연구에 가장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탐색과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으로써 간호연구는 비율의 차이는 있어도(50% 이상 70%정도) 단순히 간호현상을 서술하는 요인추구형의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대부분 논문 작성이 처음이므로 새로운 분야의 연구보다는 기존에 연구되어온 분야에 대한 반복연구나 약간의 변형된 연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겠다.

연구의 유형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요인추구형은 65~69년에 87.5%, 70~74년 84.6%, 75~79년 77.9%, 80~84년 64.9%, 85~89년 48.7%로서 연도가 증가할 수록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요인관련형은 70년 후반기부터 이용된 연구 형태로 75~79년에 13.4%, 80~84년 23.5%, 85~89년 37.6%로서 요인추구형과는 달리 연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황관련형은 65~69년에 12.5%, 70~74년 13.8%, 75~79년 7.6%, 80~84년 10.5%.

〈표 2〉 연도·학위·대학원별 연구의 유형

	요인추구형	요인관련형	상황관련형	상황생성형	총계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1960~64	1(50.0)		1(1.5)		2(0.1)
1965~69	14(87.5)		2(12.5)		16(0.9)
1970~74	55(84.6)	1(1.5)	9(13.8)		65(3.7)
1975~79	134(77.9)	23(13.4)	13(7.6)	2(1.2)	172(9.7)
1980~84	296(64.9)	107(23.5)	48(10.5)	5(1.1)	456(25.6)
1985~89	386(48.7)	298(37.6)	98(12.4)	10(1.3)	792(44.5)
1990over	145(52.4)	89(32.2)	33(12.0)	9(3.3)	276(15.5)
석사	1013(60.2)	489(29.0)	175(10.4)	7(0.4)	1684(94.7)
박사	18(18.9)	29(30.5)	29(30.5)	19(20.0)	95(5.3)
대학원	466(48.4)	316(32.8)	157(16.3)	24(2.5)	963(54.1)
보건대	341(81.2)	64(15.2)	13(3.1)	2(0.5)	420(23.6)
교육대	135(50.9)	99(37.4)	31(15.2)		265(14.9)
행정대	73(64.6)	37(32.7)	3(2.7)		113(6.4)
기타	16(88.9)	2(11.1)			18(1.0)
계	1031(58.0)	518(29.1)	204(11.4)	26(1.5)	1179(100.0)

85~89년 12.4%, 90~91년 8월에는 12.0%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상황생성형은 70년대 후반에 나타내 보인 연구로 75~79년 1.2%, 80~84년 1.1%, 85~89년 1.3%, 90년 이후 3.3%으로서, 극소수의 비율로 나타났지만, 90년 이후는 전반기에 비해 배가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증가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학위별로는, 석사논문의 경우 요인추구형이 60.2%, 요인관련형이 29.0%, 상황관련형이 10.4%, 상황생성형이 0.4%로 나타난 반면 박사학위 논문은 상황관련형과 요인관련형이 각각 30.5%이고,

상황생성형이 20.0%, 요인추구가 18.9%로서 석사논문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294.20677$, $p < 0.0000$).

대학원별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요인추구형, 요인관련형, 상황관련형의 연구를 골고루 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은 요인추구형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이들 대학원간의 연구유형 사이에도 유의한 차를 보였다 ($\chi^2 = 172.02878$, $p < 0.0000$).

2) 연구설계의 유형 분석

연구설계의 유형은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및 질

〈표 3〉 연도·학위·대학원별 연구설계의 유형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질적연구		총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960~69	3	16.7	15	83.3			18	1.0
1970~74	19	8.0	218	92.0			237	13.3
1980~84	135	10.8	1112	89.1	1	0.1	1248	70.2
1990over	35	12.7	238	86.2	3	1.1	276	15.5
석사	165	9.8	1518	90.1	1	0.1	1684	94.7
박사	27	28.4	65	68.4	3	3.2	95	5.3
대학원	152	15.8	807	83.8	4	0.4	963	54.1
보건대	11	2.6	409	97.4			420	23.6
교육대	27	10.6	237	89.4			265	14.9
행정대	1	0.9	112	99.1			113	6.4
기타			18	100.0			18	1.0
계	192	10.8	1583	89.0	4	0.2	1779	100.0

적 연구로 분류되고, 실험연구에는 순수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비실험연구에는 사례연구, 문헌고찰, 조사연구, 도구개발(방법론적 연구)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실험연구 10.8%, 비실험연구 89.0%, 질적 연구 0.2%로 대부분이 비실험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표 3). 비실험연구중 조사연구 93.0%, 문헌고찰 및 병록지 분석 6.1%, 방법론적 연

〈표 3-1〉 비실험연구의 종류 및 빈도

종 류	빈 도	%
조사연구	1472	93.0
문헌고찰	96	6.1
도구개발	11	0.7
사례연구	4	0.3
총 계	1583	100.0

구(도구개발) 0.7%, 사례연구 0.3%이었다(표 3-1).

강등(1980)은 1970.1~1979.12월까지 주요 간호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 318편을 분석한 결과 조사연구 76.1%, 문헌연구 12.3%, 실험연구 6.9%, 사례연구 9.2%를 보고하였고 이(1984)는 1970.1~1983.9월까지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211편의 분석에서 서술적연구 78.9%에 비해 실험연구는 19.5%를 보고하였고 이(1985)도 1980.1~1985.12월까지 간호학 논문 129편을 분석한 결과 조사연구가 77.5%로 가장 많았고 유사실험연구가 11.6%, 문헌연구가 7.0%, 순수실험연구가 2.3%라 보고한 바 있으며, 오등(1992)의 연구에서도 서술 또는 탐색연구가 가장 많았고 전등(1994)의 연구에서도 조사연구가 85.9%인 반면 유사실험연구는 12.4%로 나타나 간호학 대부분의 연구가 비실험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실험연구의 빈도는 60년대 16.7%, 70년대 8.0%, 80년대 10.8%, 90년 이후 12.7%로서 70년대부터 점차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실험연구의 경우 연대별로 보면 83.3%, 92.0%, 89.1%, 86.2%로 나타났으며 또한 80년대부터는 질적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1984)도 연구대상논문의 발행연도와 연구유형과의 관계에

서 실험 연구가 연도에 따라 매우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학위별 실험연구의 비율은 석사 9.8%에 비해 박사 28.4%였고 비실험의 경우 석사는 90.1%에 반해 박사는 68.4%로서 석·박사간의 연구설계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72.06419$, $p(0.0000)$). 전등(1994)은 3개 대학원의 조사연구 논문의 빈도를 비교하였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90.1%인데 비해 박사학위 논문은 52.8%였으며 실험연구 중 유사실험연구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9.4%, 박사학위 논문이 35.9%로서 박사학위의 실험연구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유사실험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의 검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였고 질적연구 역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88년 질적연구 방법에 의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이후 1993년까지 7편으로 적으나마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 4편은 1991년 이후의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학위과정이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한 학문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감당해 나가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다.

대학원별로 본 실험연구의 빈도는 간호대학원 15.8%, 교육대학원 10.6%, 보건대학원 2.6%인 반면, 비실험연구의 경우 간호대학원 83.8%, 보건대학원 97.4%, 교육대학원 89.4%로 볼 때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비실험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연구유형과 연구설계와의 관계

연구유형을 실험연구와 관련지어보면, 상황관련형이 88.0%로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 요인관련형이 6.8%로 나타났다. 상황관련형은 요인관련형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 변인간의 구체적 관계를 예측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유형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비실험연구에서는 요인추구형이 64.4%로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고 요인관련형은 31.9%였

다. 요인추구형이나 요인관련형은 어떤 현상을 탐색하고 기술하여 명명하고 개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써 조사연구, 문헌고찰, 도구개발, 사례연구 등과 같은 비실험연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표 3-2).

〈표 3-2〉 연구유형과 연구설계와의 관계

연구유형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요인추구		1019(64.4%)
요인관련	13(6.8%)	505(31.9%)
상황관련	169(88.0%)	35(2.2%)
상황생성	1(0.5%)	
기 타	9(4.7%)	24(1.5%)
계	192(100.0%)	1583(100.0%)

4) 연구대상자 분석

연구대상자의 수는 단일 대상자인 경우 1615편(90.8%)이고 둘 이상인 경우가 164편(9.2%)이었다.

단일 대상자중 가장 빈번히 연구된 대상은 환자(영유아 포함) 30.3%, 간호사(교수, 양호교사포함) 16.6%, 학생(유치원·초등·중등·고등·대학생) 9.9%, 여성(임산부, 주부, 가임기 여성포함) 13.7%, 일반인 8.0% 순으로 임상간호의 제 1 대상인 환자가 가장 빈번히 연구된 대상자임은 당연하다고 보겠다(표 4).

〈표 4〉 연도·학위·대학원별 대상자의 분류

	간호사	학생	환자	여성	가족	노인	일반인	2개이상	무생물	기타	총계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총계(%)
60~64		1(50.0)						1(50.0)			2(0.1)
65~69	3(18.8)	3(18.8)	3(18.8)	2(12.5)				1(6.3)	4(25.5)		16(0.9)
70~74	13(20.0)	9(13.8)	10(15.4)	11(16.9)	1(1.5)		4(6.2)	2(3.1)	12(18.5)	3(4.6)	65(3.7)
75~79	28(16.3)	27(15.7)	40(23.3)	35(20.3)	3(1.7)	2(1.2)	12(7.0)	12(7.0)	12(7.0)	1(0.6)	172(9.7)
80~84	75(16.4)	43(9.4)	124(27.2)	58(12.7)	9(2.0)	9(2.0)	39(8.6)	58(12.0)	35(7.7)	6(1.3)	456(25.6)
85~89	125(15.8)	71(9.0)	270(34.1)	102(12.9)	29(3.7)	16(2.0)	69(8.7)	66(8.3)	29(3.7)	15(1.9)	792(44.5)
90over	51(18.5)	23(8.3)	92(33.3)	35(12.7)	10(3.6)	8(2.9)	19(6.9)	24(8.7)	13(4.7)	1(0.2)	276(15.5)
석사	284(16.8)	176(10.5)	511(30.3)	224(13.3)	51(3.0)	30(1.8)	132(7.8)	150(8.9)	101(6.0)	25(1.5)	1684(94.7)
박사	7(11.6)	1(1.1)	28(29.5)	19(20.2)	1(1.1)	5(5.3)	11(11.6)	14(14.7)	4(4.2)	1(1.1)	95(5.3)
대학원	114(11.8)	72(7.5)	361(37.5)	144(15.0)	35(3.6)	20(2.1)	67(7.0)	109(11.3)	36(3.7)	5(0.5)	963(54.1)
보건대	58(13.8)	58(13.8)	74(17.6)	66(15.7)	11(2.6)	12(2.9)	55(13.1)	27(6.4)	44(10.5)	15(3.6)	420(23.6)
교육대	52(19.6)	43(16.2)	87(32.8)	26(9.8)	5(1.9)	2(0.8)	9(3.4)	22(8.3)	14(5.3)	5(1.9)	265(14.9)
행정대	76(59.3)	1(0.9)	14(12.4)	3(2.7)	1(0.9)	1(0.9)	8(7.1)	6(5.3)	7(9.7)	1(0.9)	113(6.4)
기타	4(22.4)	3(16.7)	3(16.7)	3(22.4)			4(22.4)				18(1.0)
계	295(16.6)	177(9.9)	539(30.3)	243(13.7)	52(2.9)	35(2.0)	143(8.0)	164(9.2)	105(5.9)	26(1.5)	1779(100)

이(1985)도 대상자의 분류에서 환자가 46명(35.7%), 건강인 34명(26.4%), 간호사 및 기타 건강전문인 25명(19.4%)으로 보고하였고, 오(1985)의 연구에서도 성인 2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환자 18.6%, 간호사 15.9%로 성인대상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오등(1992)의 연구에서는 환자가 76.9%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일반인의 순서로 보고하였다. 전등(1994)의 분석에서도 본대학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들을 보였다.

연대별 연구대상자의 분석에서, 70~74년에는 간호사 20.0%, 무생물(기록지, 오염도, 교육 등) 18.5%, 일반여성 16.9%, 환자 15.4%순으로 나타났다 75~79년에는 환자 23.3%, 여성 20.3%, 간호사 16.3%, 학생 15.7%였고 80~84에는 환자 27.2%, 간호사 16.4%, 여성 12.7%이었고 85~89년에는 환자 34.1%, 간호사 15.8%, 여성 12.9%, 학생 9.0%, 일반인 8.7%였고 90년 이후에는 환자 33.3% 간호사 18.5%, 여성 12.7%순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70년대 전반기에는 간호연구의 대상이 간호사(건강관리 제공자)와 병균의 오염도 혹은 간호교육 등 무생물에 대한 것이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환자가 주요 대상자가 되었

고 해가 거듭될 수록 간호사보다 환자에 대한 연구가 월등히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에 대한 연구가 7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80년 이후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등(1994)의 연구 대상자 분석에서 환자가 42.3%, 일반인 28.3%, 간호사 19.4%의 보고와도 유사하며, Jacobson & Meininger (1985)의 연구에서도 환자와 대상자 중심의 연구가 뚜렷이 증가하고 건강관리 제공자 중심의 연구가 감소 추세라는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대학원별 대상자의 분석에서 간호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월등히 많은 양상을 보였고 행정대학원은 전체 논문의 60%정도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타 대학원과의 차이를 보였다. 보건대학원은 특정 대상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대상자를 취하였으나 타 대학원에 비해 주부와 학생에 대한 것이 많이 연구되었다. 전등(1994)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대학원은 44.1%, 교육대학원 44.1%로 환자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으며 보건대학원의 경우 일반인이 50.0%로 환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학위별로는 석사의 경우 환자, 여성, 간호사, 학생 순이었고 박사의 경우는 환자, 여성, 간호사, 일반인으로 나타나 석·박사연구 대부분이 환자, 간호사, 여성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번히 연구된 대상인 환자(495편)군을 논문에 표현된 질환이나 병동별로 재분류해 보았다

〈표 4-1〉 영역별 환자의 분류

환자의 종류	빈도	백분률(%)
수술환자	51	10.3%
일반환자	78	15.8%
수술환자	51	10.3%
혈액투석	38	7.9%
암환자	33	6.7%
심맥관질환자	29	5.9%
당뇨환자	23	4.6%
⋮	⋮	⋮
⋮	⋮	⋮
계	259	100.0%

니,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5.8%로 가장 많았고, 수술전 후의 환자 10.3%, 투석환자 7.7% 암환자 6.7%, 심맥관질환자 5.9%, 정신질환자 4.5%, 당뇨환자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

간호사(262편)군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 임상간호사가 89.3%, 지역사회 간호사가 10.7%로 임상간호사가 월등히 많았다. 임상간호사 중에서는 일반병동의 간호사가 63.0%로 가장 많았고 특수분야 간호사가 8.0%로 이 중 정신과 간호사가 3.4%를 차지하였고 간호행정 영역의 간호사도 5.7%를 나타내었다(표 4-2). 대상자가 두 집단 이

〈표 4-2〉 영역별 간호사의 분류

	간호사의 영역	빈도	백분률
임상	일반병동 간호사	165	63.0
	마취과 간호사	1	0.4
	중환자실 간호사	4	1.5
	수술실 간호사	6	2.3
	응급실 간호사	1	0.4
	정신과 간호사	9	3.4
	외래 간호사	2	0.8
	간호행정	4	1.5
	수간호사	11	4.2
	기타	6	2.3
	2곳 이상	25	9.5
지역	보건소 간호사	11	4.2
	보건진료소 간호사	13	5.0
	산업장 간호사	4	1.5
총 계		262	100.0

상인 경우는 석사 8.9%, 박사 14.7%로 박사 논문에서 복합 대상자를 이용한 논문이 많았다.

5) 연구장소 분석

가장 빈번히 사용된 연구장소는 병실 47.8%, 학교 15.1%, 지역사회 9.6%, 외래 7.5%, 두군데 이상의 연구장소가 7.3%의 순이었다(표 5).

연도별 연구장소의 이용도를 살펴보면, 병실은 65년 이후 25%에서 70년대 초반 32.3%, 후반에 38.4%, 80년대 초반 49.2% 후반이 50.6%, 90년대에 들어서 48.7%로 꾸준히 이용되었고, 학교는 60년대 후반 37.5%에서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

〈표 5〉 연도·학위·대학원별 연구장소

	병실	학교	외래	가정	보건소	특수 분야	보건 진료소	사업장	지역 사회	2곳이상	기타	총계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총계(%)
60~64		2(100.0)										2(0.1)
65~69	4(25.0)	3(37.5)				1(6.3)	2(12.5)			1(6.3)	2(12.5)	16(0.9)
70~74	21(32.3)	17(26.2)	3(4.6)	1(1.5)	2(3.1)	2(3.1)	5(7.7)	1(1.5)	10(15.4)	2(3.1)	1(1.5)	65(3.7)
75~79	66(38.4)	36(20.9)	11(6.4)	3(1.7)		2(1.2)	9(5.2)	1(0.6)	25(14.5)	5(2.9)	14(8.1)	172(9.7)
80~84	223(49.2)	62(13.7)	28(6.2)	6(1.3)	6(1.3)	7(1.5)	11(2.4)	7(1.5)	47(10.4)	16(3.5)	40(8.8)	453(25.5)
85~89	400(50.6)	105(13.3)	64(8.1)	12(1.5)	7(0.8)	12(1.5)	16(2.0)	30(9.8)	67(8.5)	24(3.0)	54(6.8)	791(44.6)
90over	134(48.7)	39(14.2)	27(9.8)	6(2.2)	3(1.1)	4(1.5)	4(1.5)	8(2.9)	22(8.0)	9(3.3)	19(6.9)	275(15.5)
석사	805(47.9)	260(15.5)	128(7.6)	26(1.5)	16(1.0)	25(1.5)	45(2.7)	45(2.7)	155(9.2)	118(7.0)	56(3.3)	1679(94.6)
박사	43(45.3)	7(7.4)	5(5.3)	2(2.1)	2(2.1)	3(3.2)	2(2.1)	2(2.1)	16(16.8)	12(12.6)	1(1.1)	95(5.4)
대학원	520(54.2)	101(10.5)	81(8.4)	16(1.7)	6(0.6)	14(1.5)	15(1.6)	13(1.4)	86(9.0)	81(8.4)	26(2.7)	959(54.1)
보건대	105(25.1)	96(22.9)	24(5.7)	9(2.1)	12(2.9)	10(2.4)	24(5.7)	27(6.4)	67(16.0)	26(6.2)	19(4.5)	419(23.6)
교육대	132(49.8)	62(23.4)	25(9.4)	1(0.4)		3(1.1)	6(2.3)	3(1.1)	10(3.8)	17(6.4)	6(2.3)	265(14.9)
행정대	86(76.1)	4(3.5)	3(2.7)	2(1.8)		1(0.9)		3(2.7)	3(2.7)	6(5.3)	5(4.4)	113(6.4)
기타	5(27.8)	4(22.2)										18(1.0)
계	848(47.8)	267(15.1)	133(7.5)	28(1.6)	18(1.0)	28(1.6)	47(2.6)	47(2.6)	171(9.6)	130(7.3)	57(3.2)	1774(100.0)

여 80년대 후반에는 13.3% 정도로 낮아졌고 지역 사회도 70년대에 연구장소로서 15.4%나 이용하였으나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80년대 후반에는 8.5%까지 낮아졌다.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도 70년대 초반에 7.7%이었던 것이 점차로 감소되어 80년대 후반에는 2.0%, 90년 이후는 1.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래는 70년대에 4.6%로 이용되었으나 점차로 증가 추세를 보여 80년대 후반에서는 8.1%, 90년대 이후는 9.8%로 증가되었다. 사업장 역시 70년대 전반에는 1.5%였으나 80년대 후반에는 3.8%, 90년대 이후는 2.9%로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가정도 이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등(1992)의 연구에서 병원이 6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학교 34.3%, 외래/가정이 16.7% 등으로 나타났고 전등(1994)의 연구에서도 본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서 병원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보건대학원에서는 지역사회 58.0%, 병원 38.3%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학교와 가정, 보건소 등 광범위한 범주로 책정한데 따른 것으로, 세분화한 본 연구의 경우 이들을 총괄하면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2354편 중 76%에 해당되는 국·영문초록 또는 학위논문의 결론 부분이 입수 가능한 1779편의 학위논문을 분석의 근거로 하였다. 연구분석의 내용은 이은옥(1991)의 '간호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연구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장소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유형의 분석에서 요인추구형 58.0%, 요인관련형 29.1%, 상황관련형 11.4%, 상황생성형 1.5%로 학위논문의 약 60%가 요인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요인추구형의 사용 빈도는 점차 낮아지고 요인관련형은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황관련형과 상황생성형도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위별로는 석사 논문인 경우 요인추구형이 60.2%, 요인관련형이 29.0%, 상황관련형이 10.4%, 상황생성형이 0.4%였고, 박사논문인 경우 상황관련과 요인관련형이 각 30.5%, 상황생성형이 20.0% 요인추구형이 18.9%로 나타났다.

대학원별로는 간호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요인추구, 요인관련, 상황관련형의 연구를 끌고루 하고 있는 반면, 보건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은 요인추구 형태가 각각 81.2%, 64.6%로 다수를 차지하여 대학원간의 연구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2. 연구설계의 분석에서 실험연구 10.8%, 비실험연구 89.0%로 대부분 비실험연구로 나타났다. 연도별 실험연구의 빈도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고 비실험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질적연구도 80년 이후부터 나타나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위별로는 석사인 경우 실험연구 9.8%, 비실험연구 90.1%임에 비해 박사는 실험연구 28.4% 비실험연구 68.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별로는 실험연구인 경우 대학원 15.8%, 교육대학원 10.6%인 반면 비실험인 경우에는 간호대학원 83.8%, 보건대학원 97.4%, 교육대학원 89.4%로 나타났다.

3. 연구유형과 연구설계와의 관계를 보면 실험연구는 상황관련형이 88.0%, 요인관련형이 6.8%로 나타났다. 비실험연구는 요인추구형이 64.4%로 가장 빈번했으며 요인관련형은 31.9%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별 분석에는 단일 대상자인 경우 90.8%, 둘 이상인 경우가 9.2%이었다. 대학원별로는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월등히 많았으며 행정대학원은 전체 논문의 60%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연도별로는 70년대 초반까지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환자가 주요한 대상임을 볼 수 있다. 학위별로는 석사의 경우 환자, 간호사, 학생의 순위였고 박사의 경우 환자, 여성, 간호사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장소는 병실 47.8%, 학교 15.1%, 지역사회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소로 1970년대에는 병실 36.7%, 학교 22.4%, 지역사회 14.8%의 순이고, 80년대에는 병실 50.1%, 학

교 13.4%, 지역사회 9.2% 순으로 연도에 따른 병실의 연구장소 이용도는 증가한 반면 학교와 지역사회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부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별로 후속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유형과 관련해서 연도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2.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들이 연도에 따라 어떤 자료 분석방법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횡적 연구 및 비교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윤희, 이숙자 (1980).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3), 54~59.
-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2). 석.박사학위논문 목록집, 현문사.
-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1).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간호계 석·박사 학위논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1).
- 김매자역 (1991). 간호의 개념과 개념으로서의 간호, 대한간호, 30(2).
- 박성애 (1989). 간호행위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전망, Sigma Theta Tau 학술대회보고서, 7~20.
- 양광희 (1990). 간호개념의 의미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4(1), 5~16.
- 오가실 (1985). 간호연구의 학문성과 실용성, 월간간호, 9(1).
- 오가실 (1992).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현황과 문제, '과학의 날'기념 간호학 종합학술대회지.
- 이영은 (1984). 한국에서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조사연구, 복음간호전문대학논문집 2권,

83~88.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1). 간호·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수문사.
전시자, 홍근표, 양원영, 이정자, 이봉숙, 김종일, 허혜경, 임지영, 안주영 (1994).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 대한간호, 33(2).
조결자 (1977). 한국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통계적 고찰, 경희간호연구지 1(!), 49~58.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향련, 이경자, 박오장 (1983).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 22(3), 115~130.
International Nursing Index (1991). American Journal of Nursing Co.
Loomis, M.E (1985). Emerging content in nursing: An analysis of dissertation abstracts and titles: 1976~1982, N.R., 34(2), 113~119.

A Statistical Analysis on Nursing-Related Theses in Korea

Heegerl Kim(Junior College, Red Cross Nursing)
Youngsook Lee(Junior College, Red Cross Nursing)

In order to see the development of nursing related research activities in Kore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bstracts of almost all of the Masters and Ph. D. theses that had appeared from 1961 up to August 1991 were collected. Number of theses amounted to 1779(76%) out of a total of 2354 theses. We analysed the papers research patterns, which are research problem, research design, population, place.

Here is what we have found.

1). The types of research problems were as follows.

58.0% papers did factor~analysis, 29.1% studied factor~relations, 11.4% situation~relations and 1.5% did situation~creations.

With respect to the years, we found that the factor~analysis papers decreased with time but the factor~relating, the situation~relating, and the situation~creating papers were increased. Especially the situation~creating paper increased notably since the 80s'.

Relating to the kind of degrees, we found that for M.S.theses 60.2% of the papers did factor~analysis, 29.0% the factor~relating studies, 10.4% the situation~relating studies, and 0.4% the situation~creating studies. For the Ph.D. theses 30.5% did the factor~relating, 30.5% the situation~relating, and 20.0% the situation~creating papers.

Considering the graduate schools, we found that the regular graduate schools an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roduced about the same number of papers of each kind, but 81.2% and 64.6% papers produced b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pectively, did the factor~analysis thus taking majority of the papers.

2). Research designs were as follows :

10.8% experimental studies, 89.0% nonexperimental studies, and 0.2% quality studies were found. So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designs were nonexperimental. We see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M.S.theses showing 9.8% experimental studies and 90.1% nonexperimental studies, and Ph.D.theses showing 28.4% experimental studies and 68.

4% nonexperimental studies.

Relating to the graduate schools, we find that the regular graduate schools an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ith 15.8% and 10.6% experimental studies respectively, did a little more experimental studies than other schools, but still the regular graduate school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ach show 83.8%, 97.4%, and 89.4% nonexperimental studies, so most schools are concentrating on nonexperimental studies.

3). On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problem and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studies show 88.0% of situation-relations and 6.8% of factor-relations. Nonexperimental studies had factor-analysis taking the majority by 64.4% and 31.9% were factor-relations.

4). On the research subjects, we have 90.8% of the papers dealing with a single subject and 9.2% of the papers dealing with two or more subjects.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are patients or nurses for the regular graduate schools an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t for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as much as, 60% of the studies took nurses as subjects.

Subjects taken were patients, nurses, and students in decreasing order for the M.S. theses and for patients, women, and nurses again in decreasing order for the Ph.D.theses.

5). On the places of study, we've had 47.8% of the studies done in hospital rooms, 15.1% in schools, and 9.6% in the local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years, we found 36.7% in the hospital rooms, 22.4% in the schools, and 14.8% in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1970's and 50.1% in the hospital rooms, 13.4% in the schools, and 9.2% in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80's.